

「복음의 기쁨」: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
(*Evangelii Gaudium: Una Nuova Evangelizzazione del Sociale*)

서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앞둔 이 심포지엄에서, 저는 교황님의 사회적 가르침 가운데 두드러지는 일부 측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분의 중요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교황 권고는 그분 직무의 강령과도 같은 문헌으로 여겨집니다.¹ 무엇보다도 이 교황 권고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증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1.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그리스도론과 종말론적 토대, 그 대상과 관련 분야

「복음의 기쁨」은 전반적인 교회의 복음화적 쇠신을 위한 대헌장(*cartha magna*)일 뿐만 아니라 사회 사목과 이와 관련된 복음화의 복음화적 쇠신을 위해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사회 안에도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십니다. 이는 제4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제4장에서 신앙과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을 각별히 광범위하게 다루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그밖의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이 차원에 비추어 보십니다. 예를 들어, 제2장은 시장과 금융의 절대 자율을 옹호하는 이념의 산물이자(「복음의 기쁨」, 56항 참조), 무관심과 배척과 윤리 종교적 상대주의, 외양을 중시하는 문화의 만연에서 비롯된(52-64항 참조) 경제적 사회적 도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황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시게 된 동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사회적 차원을 “올바로 다루지 않으면 복음화 사명의 참되고 본질적인 의미가 계속 왜곡될 위험이 있다.” (176항)고 단언하셨습니다.

¹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년(제2판 2쇄).

교황님께서서는 사회 복음화와 그 관련 사목의 중요성을 밝히시고자, **첫 선포(케리그마)**와 또한 신앙을 통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명료한 **사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모든 이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고백한다는 것,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선익**을 바라고 찾고 배려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선포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사회적 임무**를, 곧 “형제애와 정의의 복음” (179항)의 삶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일깨우시고자 강생의 **실재성**과 구원의 **완전성**을 본질적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은 인성을 온전히 취하시고 인간을 그 전인적인 차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가난한 이든 굶주린 이든 옥에 갇힌 이든 이민이든 죄인이든 소외된 이든 착취와 모욕으로 존엄성을 침해당한 이든, 모든 사람의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 준 모든 것이 바로 그분께 해 준 것입니다(마태 25,40 참조). 예수님께서 온 누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모든 이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교회의 사랑의 임무가 흘러나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선포와 체험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결실들을 자아냅니다. 교회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당신 안에서 당신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시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에페 1,10 참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로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강생하심으로써 사회생활을 비롯한 인간의 삶을 구원하시고 변모시키시는 분으로서도 사랑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생활을 “모든 이를 위한 형제애, 정의, 평화, 존엄의 자리” (180항)가 되게 하십니다. 사회의 복음화와 이와 관련된 사목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에 대한 경험의 표현들입니다. 사회의 복음화가 말하는 봉사나 섬김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입니다. 바로 이 본성에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사랑,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는 공감의 솟아납니다” (179항).

다시 말해서, 사회 사목은 온 교회에 생명을 주는 그 유일한 사랑, 곧 아가페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구현을 위한 수많은 길을 찾습니다. 더 순수한 복음화와 전례의 길, 자선이나 도움의 길, 자유와 인간 증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²

사회생활의 다양한 분야를 복음화하고 증진하는 활동들은 바로 그 분야의 사목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회 사목의 전통 분야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삶의 변두리**(30항 참조)와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도 유념하면서, 이 땅에서 상처 받기 쉬운 이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계심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시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마태 25,40 참조). ‘성공’이나 효과주의에 빠진 오늘날의 사고방식과는 반대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투자하여 그들 스스로 삶의 길을 일구어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심 없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노인들과 이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랑에서 우러나온 관심과 활동의 빛은 널리 퍼져 비극적인 현상들도 비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극 가운데에는 인신매매,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낙태, 다양한 종들의 소멸, 환경 파괴 등이 있습니다(209-216항 참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새로운 도전들도 고려하여 사회 사목의 지평들을 더 넓히려면, 사회 사목을 다른 사목 형태들과 **협력 증진하여** 조직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하나의 실재로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선 활동이나 원조 활동을 이어가고 증진하는 사목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사목은 가정 사목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 사목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포인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련된 정책들도 살핍니다. 가정 사목에 대하여 가정 자체가 단체들을 결성함으로써 촉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회의 복음화의 공동체적 차원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전임 의장 레나토 라파엘레 마르티노 추기경님께서 몇 년 전 이곳 대한민국에서 「간추린 사회 교리」를 소개하시며 잘 설명하셨듯이, 교회의

²이 주제에 관해서는, 베네딕토 16 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05.12.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제 1 판 16 쉼) 참조.

사회 교리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와 그 관련 사목의 주체는 총체적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 전체입니다.³

사회 사목의 풍요로움은 교회 구성원들의 친교성과 선교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의 더욱 효과적인 새로운 복음화라는 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주교들과 사제들이 그들의 가르치는 임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들이 현세 문제들에 직면하여 사회에 대한 대원칙들을 강조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사회에 대한 대원칙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반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역사와 그 역사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도전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과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인 공공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밀한 영역과 성역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요구, 사람들과 제도와 공동선에 대한 진심어린 염려와 배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학문의 기여를 받아들여, 교회의 사목자들은 인간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화 사명은 모든 인간 존재의 전인적 진보를 포함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고 오로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만 종교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을 영원한 총만함으로 부르시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려고’ (1티모 6,17), 곧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특히 ‘사회 질서와 공동선 추구하고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182항). 바로 이어서, 교황님께서서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 ‘국가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가 정치의 핵심 의무’ 라 하더라도,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며 개혁적인 활동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심에서 나오는 희망을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이와 동시에 그 사상은 ‘가톨릭 교회는 교리의 성찰 단계든 실천 단계든 사회 분야에서 다른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노력에’ 기꺼이

³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o del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2004.4.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6쇄), 79.538 항 참조.

동참합니다” (183항).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님께서서는 사회를 복음화하고 또 현세 사물에 그리스도교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앞서 인용한 「간추린 사회 교리」를 제시하십니다. 이 책은 지역 공동체가 ‘알맞은’ 도구로서 공부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교황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음화와 인간 증진에 대한 **공동체적**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실천 방향**들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1) **주교, 사제, 평신도**는 -그러나 수도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창조’ 를 이루시고자 오신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고무되어 **모두** 더 나은 세계의 건설, 곧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여야 합니다.

2) 교회는 “ 정의를 위한 투쟁” 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고, 자신의 모든 구성원을 통하여 다양한 직무와 은사에 따라 온 힘을 다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3) 사목자들, 곧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 수도자가 그들의 **가르치고 다스리는 임무**를 바탕으로, 곧 그들의 사목적 책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존재의 삶과 전인적 진보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때, 그들은 정치 권위자들로부터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없습니니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기도 한 것처럼, 사목자들이 인간 생활과 사회 제도들과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때 평신도 자신들이 그러한 자기 목자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공공의 차원을 지니고 있고, 이 차원은 영성 지도로 분명히 길러지고 증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현세 사물에 그리고 특히 정치에 그리스도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관련하여, 사목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 직무와 책무의 - 상호 보완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주교나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나 수도자와 협력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평신도는 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현세 사물을 관리하고 사목자들의 **가르치는 임무**를 뒷받침하고 이 임무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분열된 몸은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결국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사목자들에게는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임무가 없습니니다. 그러나 사목자들이 도외시킬 수 없는 의무는, 사회적 양심을 형성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교리를 증진하는 것인데, 이는 이웃과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고, 다른 이와 공동선을 위한 책무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이 허사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목자들이 맡은 임무 가운데에는 양성의 임무 외에도,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동반할** 임무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실재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공동선의 증진에 앞장서서 일하는 평신도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목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 사목의 풍부한 결실이라는 관점에서, 친교와 나눔은 사목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이에서도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이 되려고 주장하는 “영적 세속성”에 사로잡혀 병들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것을 일구어가려 하기 보다는, 자기 공동체를 장악하려 하고 자신의 주관을 강요하려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관주의에 갇힌 신앙이 갖는 위험입니다(93-97항 참조).

교회의 공간과 교회 사명을 장악하려는 욕심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그 조직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단죄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쓰신 대로, 영적 세속성의 영향으로 일부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라는 전망에서 볼 때, “우리 사이에 싸움은 안 된다.”(98항)고 하신 교황님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실, 서로서로 헐뜯고, 더 나아가 자기 형제와 등질 때, 어떻게 국가와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화해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3.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임무

앞서 언급한 대로,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모든 인간과 인간 전체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받아들이고 거행하고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히 평신도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보편적인 형제애와 평화와 존엄의 자리가 되게 할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모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마음속에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모든 이의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또 **만남과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평화와**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3.1. 가난한 이들의 사회 통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바오로 6세 복자의 뜻을 따라, “ 각 지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각 지역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책임” (184항)이라고 강조하신 다음, 모든 공동체에게 중요한 문제로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제시하십니다. 무관심의 문화와 버리는 문화가 만연한 역사적 상황에서,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187항).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정의를 요구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다면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188항 참조). 세상의 가장 가난한 민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줄 때, 권리를 침해당한 채 빈민 지역과 시골에서 땅도 집도 먹을 것도 의료 혜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곤경과 슬픔에 함께할 때, 참다운 신자가 됩니다(190-191항 참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 무참한 불의의 상황과 그 불의를 지속시키는 정치 체제와 관련하여” (194항) 알면서도 그 공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비참과 고통과 굶주림 앞에서, 우리는 재화와 소득의 불의한 분배도 낭비의 만연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191항 참조). 또한 소수의 이익을 위한 지구 자원의 조직된 착취(190항 참조), 다른 이의 요구와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재화의 이기적 사용(189항 참조)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특별한 형태의 우선권” 으로 이해되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 실천하여야 하는 으뜸 사랑” 인 “ 복음의 선포” 는 설득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매우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은 물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험에 빠트린다” (사목 헌장 43항).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잊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의 사회 통합을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 나 자신과 하나라고 여기며 다른 이를 향하여 쏟는 사랑의 관심” 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상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상적 사랑은 겉모습에 상관없이 다른 이를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착취할 수 없는 형제자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199항 참조). 특히 소수의 재화 독점을 극복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188항 참조).

두 번째로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빈곤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르 6,37).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대성은 어찌다가 베푸는 자선 행위 이상의 폭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복지 계획들의 총합보다 더 폭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202항 참조). 연대성은 무엇보다도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일에 온 국민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나 “ 품위 있는 생계” 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번영**을 지향하는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분명히 밝히셨듯이, 이는 **교육, 의료 혜택, 무엇보다도 고용**을 의미합니다. “ 인간은 바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참여적이고 연대적인 노동을 통하여 삶의 품위를 드러내고 드높이기 때문입니다” (192항). 바로 이어서, 교황님께서서는 **연대 실현의 또 다른 길**들을 열거하십니다.

a) **시장과 금융 투기의 절대 자율성의 거부**. 곧 국가 통제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포기**. 이러한 정책에 따르면, 시장과 투기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규칙이 갖는 자발적인 기능에 따라, 국가들의 부를, 모든 이의 안녕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경험이 보여 주듯 자유 시장은 그들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이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시장의 눈먼 힘과 “ 보이지 않는 손” 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성장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 더 나은 소득 분배, 일자리 창출, 단순한 복지 정신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진보를

분명히 지향하는 결정, 계획, 구조 과정을 요구합니다” (204항). 경제의 세계화가 일부 사람들을 위하여 부와 성장을 창출하였다면, 이것이 정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늘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고자 노동력을 줄여 노동자들을 배제된 이들의 대열에 합류시켜 버리는 전망은 **인간과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 곧 모든 이의 선익에 봉사하는 경제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b) 무절제한 투기적 금융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반영하는 **경제 정책**.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은 걸치레에 불과한 부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203항 참조). 곧 경제 체재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c) 경제와 금융보다 정치가 우선권을 회복함으로써 **공동선과 가난한 이에게 봉사하는 정책과 정치인들**.

d) **윤리적 의미의 금융 개혁**(58항 참조). 돈은 봉사해야 하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e) **건강한 세계 경제**. 이는 각국의 주권을 마땅히 존중하면서도 일부가 아닌 모든 나라의 경제적 안녕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증재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습니다(206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제안하신 길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1) 상호 연관된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베네딕토 16세께서 이미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에서 당부하신 대로(67항 참조)⁴, **초국가 기구들의 개혁과 경제 제도와 국제 금융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가 경제의 의존성을 고려해 볼 때, 한 개별 국가 정부가 초국가적 문제들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지역 문제들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실제로, 지역 정치는 개별 지역 안에서 찾아야 하는 해결책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세계적인 연관 관계를 간과할 수

⁴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세계 공적 권위와 국제 금융 통화 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2011.10.24.)에서 이러한 전망을 더 깊이 다루고자 하였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공지 「세계 공적 권위와 국제 금융 통화 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Per una riforma del sistema finanziario e monetario internazionale nella prospettiva di un' autorità pubblica a competenza universale*),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6 호(2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19 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어떠한 정부도 공동의 책임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206항 참조). 세계적인 문제들에는 국제 기구들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2) **포용 경제**의 실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사람을 죽이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53항). 최근의 세계적 위기가 보여 주듯, 안면도 없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실질적인 경제 위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55항 참조). 따라서 모든 이를 위한 현실적이고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과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를 구축하느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베네딕토 16세께서 「진리 안의 사랑」에서 제안하신 대로, 인간적인 모습의 경제는 자유 시장과 **계약 교환의 논리가 정치적 논리와 조건 없는 중여의 논리에 통합된 경제**입니다. 이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경제입니다(「진리 안의 사랑」, 36항 참조). 이는 공동선에 책임이 있는 **정치를 통한 재분배의 형태와 올바른 법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중여 정신이 깃든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은 그 수많은 단계에서 **정의와 무상성의 원칙이**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더 인간답고 더 ‘민주적인’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과 더불어, 상호 부조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생산조직들이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의 사랑」, 38항). **방대한 가치를 지닌 기업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이곳 대한민국에서 2012년에 승인된 새로운 협동조합법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협동조합법은 연대성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 부조를 통한 **사회 복지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과 가족 기업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고강도**’ **민주주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곧, 대중 영합주의와 온정주의의 위험을 극복하면서 대표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더 참여적이고 더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저강도’ 민주주의의 사고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곧 현재와 같은 여러 단계의 빈곤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또 발전과 국제적 참여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의 부재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또 부차적인 문제에 주력하느라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한편으로 제쳐두는 정치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정치는 모든 이를 위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실업과 불안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⁵. 권리들의 실현이 세계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이 세상에서, 고강도 민주주의의 ‘보편화’ 없이도 권리들이 보장받고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미래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장 받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보장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⁶.

3.2. 공동선과 사회 평화를 위한 활동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상기해 주신 대로, 정치 생활에 대한 참여는 신자들의 소명이며 도덕적 의무입니다(『복음의 기쁨』, 220항 참조).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삶의 정치 사회적 차원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모든 이를 위한 온전하고 연대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기에 통합적인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선과 사회 평화를 이루는데 능동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의 재분배, 가난한 이들의 사회 통합, 인권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 배부른 소수를 위한 잠시뿐인 평화나 허울뿐인 서면 합의를 이룬다는 구실로 짓눌리는” (218항) 상황에서는 사회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모든 이의 선익을 다른 모든 것 위에 둘 때 이루어집니다. 평화는 공동선과 더 완전한 정의의 실현으로 빛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는 모든 이를 위한 온전하고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평화라는 위대한 선이 있으려면, 모든 시민들이 공동선으로 부름 받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한 국민이라는 체험, 국민으로서 우리임을 삶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체의 부분임을 자각하면서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공동선을 지향하는 윤리적 일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시민권을 향하여 다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인의 수위성, 담합주의, 근시안적 전망, 정치의 흥행화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온전하고 통합적인 발전 계획을 이룩해 나가지 못하는 지배층의 무능력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⁵ J.M. Bergoglio, *Noi come cittadini. Noi come popolo. Verso un bicentenario in giustizia e solidarietà*, 2010-2016, Libreria Editrice Vaticana-Jaca Book, Città del Vaticano-Milano 2013, pp.31-32 참조.

⁶ Z. Bauman, *Il demone della paura*, Editori Laterza-Gruppo Editoriale L'Espresso Spa, Roma-Bari-Roma 2014, p.48 참조.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의 국민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건설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의 대전제에서 비롯되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이 원칙들은, 특히 사회적 공생을 증진시키고, 공동선에 대한 소명이 부과하는 하나의 공통된 계획 안에서 서로의 차이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국민 건설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222-237항 참조). “시간은 공간보다 중요하다.”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실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첫 번째 원칙은 눈앞의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는 어렵고 적대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현실의 힘이 강요하는 계획의 변경을 참을성 있게 견뎌 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가 충만함과 한계 사이의 긴장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우선시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따금 사회 정치 활동에서 보는 잘못들 가운데 하나는 공간과 힘을 시간과 진전보다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권력의 공간들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현재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정을 고착시켜 진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공간들을 장악하기보다는 진전의 과정들을 시작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223항).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친교를 이루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차이 속에서 친교를 증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갈등 밖으로 용기 있게 뛰쳐나와 다른 이들을 그들의 심오한 존엄성 안에서 바라보는 훌륭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28항). 이는 적을 비방하는 영속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치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또 국민의 실질적인 문제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실재를 가리는 것을 거부하고, 전체주의, 상대주의, 형식적인 계획, 근본주의, 선의 없는 도덕주의, 지혜 없는 지성주의 등에 동조하지 않게 해 줍니다(231항 참조).

네 번째 원칙은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 놓인 자연적인 긴장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두 차원이 결합될 때,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달지 않게

됩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세계화된 보편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장행렬을 따라가는 구경꾼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불꽃놀이에 탄성을 지르며 입을 벌린 채 시키는 대로 박수만 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민속 박물관이나 지역의 은둔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늘 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처지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올타리 너머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움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234항). 개별이든 집단이든 민족들의 건설에서 따라야 할 모델은, 적당한 차이와 각 부분의 고유성을 없애 버리는 구체의 모델이 아니라, **다면체**의 모델입니다.

「복음의 기쁨」 제4장은, 이미 강조했듯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형제애와 정의의 민족들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며 끝맺습니다. 모든 시민과 그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총명한 발전에 봉사하고 다문화와 다종교 사회의 상황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여기에서는 신자들이 몸담아야 하는 네 분야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곧, **국가와 나누는 대화**, 문화와 과학과 나누는 대화를 포함하여 **사회와 나누는 대화**, 교회의 일원이 아닌 **다른 믿는 이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진선미를 진심으로 추구하는**(257항 참조) **선의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4. 짧은 결론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5장에서 제시하신 대로, 말만이 아니라 특히 하느님 현존으로 변모된 삶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와 자기 공동체와 자기 형제들과 친교를 이루며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깃들어 이끄시는 복음 선포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삶의 번두리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구현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사랑의 요구만이 아니라 강생의 논리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262항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오 토소 주교

<원문: Mario Toso, *Evangelii Gaudium, Una Nuova Evangelizzazione del Sociale*>